하마다 야효에의 비

하마다 야효에(생몰년 미상)는 외국의 통상력에 맞서 일본과 네덜란드 사이에 보다 공평한 무역 조건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후원을 받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는 17 세기에 동아시아에서 유럽 최대의 무역업자로 향신료와 비단을 유럽으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통상 기지로 지역 전체에서 항구를 확보했고, 군사력을 동원해 그들의 권익을 지켰습니다.

대만에 있는 네덜란드인

하마다는 1620 년대에 나가사키를 거점으로 삼았던 무장상선인 '주인선(朱印船, 슈인센)'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상선들은 타이난(현재의 대만)을 경유하여 명나라와 무역을 했고, 도쿠가와 막부(1603~1867)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1624 년, 중국에 개항을 강요할 수 없었던 VOC 는 대만에 무역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일본인들에게 상품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중국 비단 상인들은 네덜란드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1625 년, 네덜란드가 통치한 포모사(대만)의 네덜란드인 총독은 일본인들이 그곳에서 통상을 하는 것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항구를 경유하는 모든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마다의 네덜란드 패권에 대한 항의

중국 상인들로부터 비단 등을 사들이기 위해 1625 년에 나가사키에서 대만으로 항해했을 때 하마다는 새로운 관세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하마다의 화물을 압수했으며, 일본의 상선은 일시적으로 대만에서의 통상을 금지당했습니다. VOC 는 이미 막부의 허가를 받아 나가사키 북쪽 끝에 있는 히라도에 교역소를 두고 있었으며, 금, 은, 동을 공급하고 비단, 설탕, 유럽 상품을 사들이는 일본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네덜란드 측은 대만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막부 측에 배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대만 사람들로부터 통제권을 받았다는 주장을 시도한 하마다가 아무래도 이것을 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네덜란드와 하마다 양쪽 모두 배알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인질사건

1628 년, 하마다는 다시 대만에서 통상을 시도했습니다. VOC 는 하마다의 화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의 무역선에 정박료를 부과했으며, 그가 이를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자 하마다의 배와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하마다는 네덜란드 총독을 인질로 잡고서 배와 재산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대만의 네덜란드 당국은 일본과 무역을 하는 VOC 의 권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하마다의 요구에 동의했으며, 이후 화해 조치로서 총독을 일본에 보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 총독은 몇 년 동안 연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VOC 는 선물과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등 막부에 몇 번이나 교역을 제안했습니다. 1639 년에 막부가 외국의 권익에 대항하여 쇄국정책을 폈으나 네덜란드인만은 엄격한 관리하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다 야효에는 네덜란드 측에 굴하지 않고 해외에서 일본의 권익을 굳건하게 지킨 것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